

[딜메이커 지창배]

법원도 인정한 특수관계...5600억 베팅한 최윤범

이슬이 기자 입력: 2026.02.23 06:10

▶ # 원아시아파트너스 # 고려아연 # 지창배

② 1심 재판부 "고려아연과 지창배는 특별한 관계"...개인빚 청산에 펀드 공금 활용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사진=뉴스1)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고려아연 등)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지창배)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의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특별한 관계'를 적시했다. 유죄를 언도 받은 지창배 회장과 그에게 수천억원의 자금을 대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의 사적 인맥은 일반적인 사업 관계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사례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실제 해당 사법부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창배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다수의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면서 여러 자본시장 거래에 막후 역할을 한 사실은 적시했다. 특히 수천억원대 펀드 결성을 가능하게 했던 주된 자금의 원천이 지창배 회장의 경기중학교 동창인 최윤범 회장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고려아연의 유보금에서 나왔고 그 규모가 무려 56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 개인 빚을 펀드로 갚다니...그것도 담보 없이

양환승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지창배 회장에 대해 '원아시아가 운용한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창배 회장이 펀드 자금을 사금고처럼 유용해 개인 채무를 갚는 등의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여러 사모펀드들에 미친 지창배 회장의 재량권이 법적인 허용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비리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조성 규모와 운용의 특수성에서 본다면 자본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펀드 구조와 주된 자금 흐름 원천이 연기금이 아니라 제조 상장사 고려아연이라는 특수한 일개 법인에 지나치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연결고리는 오너들의 유년시절 학연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창배 회장과 최윤범 회장은 같은 1975년생 동갑내기로, 실제 가까워진 것은 경기초등학교를 지나 경기중학교에서부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고교 시절 최윤범 회장이 도미해 미국 보딩스쿨에 입학하고 이후 애머스트대(Amherst College)를 졸업할 때까지는 두 사람이 소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윤범 회장이 컬럼비아대 로스쿨(Columbia Law School)을 졸업하고 맨해튼 로펌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오가며 고려아연 승계에 돌입한 이후로는 다시 접점이 깊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창배 회장이 중심이 된 한중우호협회의 청년 경영인 모임에 최 회장이 차세대 경영인으로 참여하면서 두 사람의 친목은 더 굳건해졌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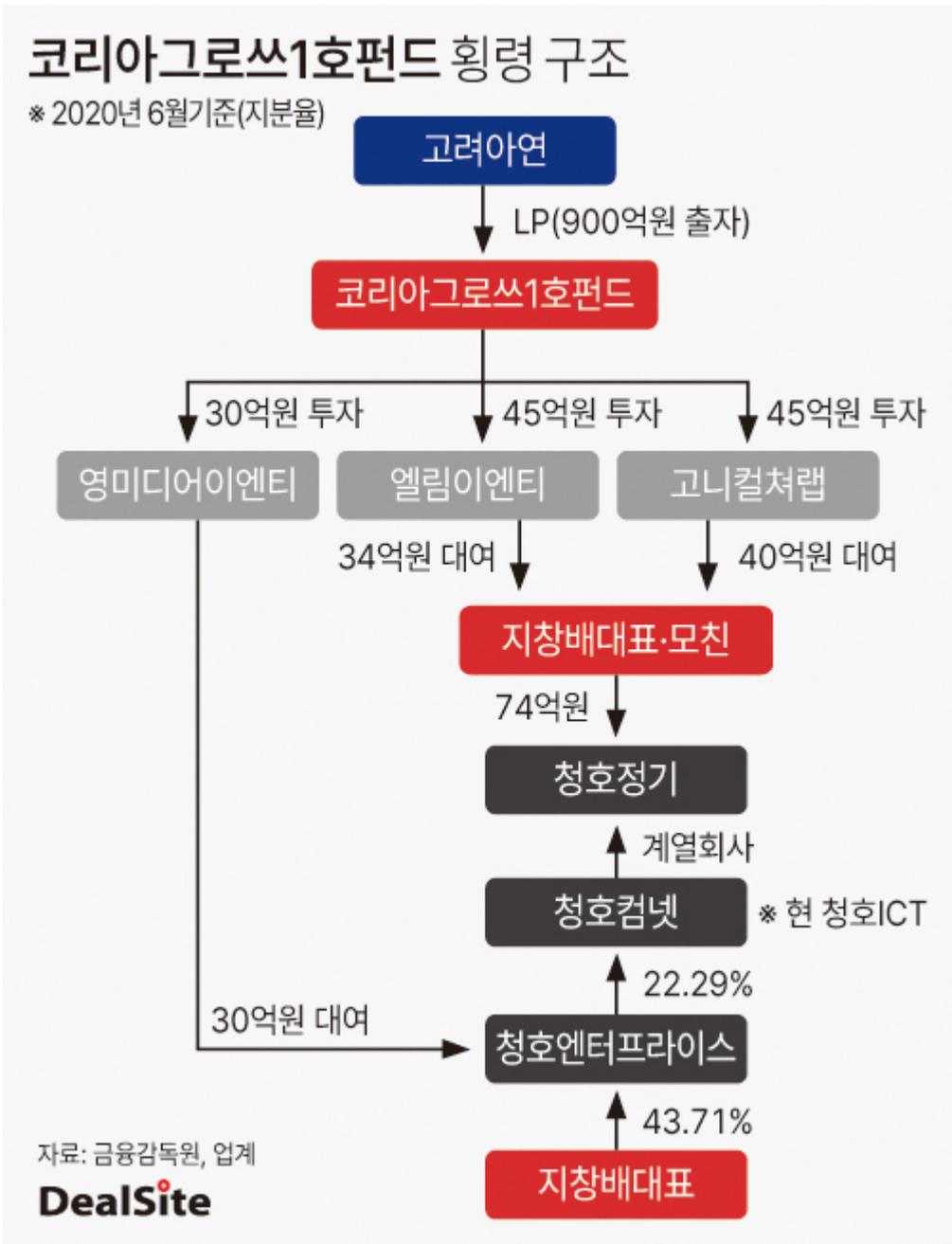
지창배 회장이 2019년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설립하자 최윤범 회장은 큰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정을 증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코리아그로스제1호' 펀드의 경우 결성액 951억원 가운데 94.6%에 달하는 900억원을 고려아연이 댄 것이 실례다. 이 펀드의 경우 사실상 출자자 비중을 감안하면 고려아연 단독 펀드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인 블라인드 펀드가 다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명하게 운용되는 것과 달리 원아시아의 펀드들은 철저히 두사람의 펀드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고려아연은 2019년부터 4년 간 원아시아 펀드에 총 56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나 리스크 심사 등 상장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는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얻는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특성상 불법이 아니라면 출자자와 운용사가 서로 협의해 재량 내의 운용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창배 회장은 친구이자 출자자가 대준 실탄을 펀드나 조합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자동화기기(ATM) 제조사 청호컴넷(현 센트럴인사이트)과 관계사들이 자본잠식 등 경영난에 시달리자 펀드 자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창배 회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펀드 자금 120억원을 활용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호정기와 청호엔터프라이즈 등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썼다.

구체적으로 이들 관계사는 청호컴넷에서 이전된 부담을 안고 있었다. 2008년부터 청호컴넷이 약 5년 간 청호엔터프라이스에 대여한 201억원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거나 지속된 적자 누적으로 결국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지창배 회장은 상환 여력이 없던 계열사 금전대차 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 본인이 청호정기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코리아그로스제1호 펀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창배 회장은 지인이 설립한 엘림이엔티, 그리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임원이 사내이사로 자리하고 있는 고니컬처랩과 영미디어이엔티에 투자금 집행 명목으로 코리아그로스제1호 자금을 활용했다. 이후 해당 자금들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자신의 가족 계좌로 이체한 후 청호정기와 청호엔터프라이스, 청호컴넷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식상으로는 미디어.엔터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펀드 자금을 담보 없이 차용한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창배 대표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중 90억원을 엘림이엔티와 고니컬처랩 명의 계좌로 각 45억원씩 투자금 집행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후 총 74억원을 자신과 모친 계좌로 이체한 뒤 청호정기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활용했다. 또 펀드 자금 중 30억원은 영미디어이엔티 명의 계좌로 이체해 청호엔터프라이스에 무담보로 대여했다. 당시 청호엔터는 자본잠식 상태로 변제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펀드의 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한 것이 배임 혐의를 받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코리아스로스1호펀드 횡령 구조(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 기자)

◆ 출자자가 GP 횡령 알고도 묵인...사라진 내부통제

문제는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를 둘러싼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의 후속 대응이다. 재판부는 지창배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고려아연 등) 출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사모펀드 출자자와 운용사의 관계가 해당 문제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고 적시했다. 해당 펀드의 90% 이상 지분을 가진 최대 출자자 고려아연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감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출자자 혹은 LP(유한책임사원)는 운용사로부터 정기적인 운용 보고를 받으며 자금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감찰한다. 그러나 지창배 회장이 펀드 자금을 쌘짓돈처럼 쓰는 동안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상장사가 유보금을 크게 투자해 놓고도 관련 배임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눈감았다면 명백한 배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코리아그로스제1호는 형식상 여러 전문 투자자가 참여한 PEF지만 구조를 보면 지창배 대표 주변 인맥으로 채워진 '지인 펀드'에 가깝다.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회장이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원아시아가 만든 여러 펀드들에 이름을 올린 LP들 역시 이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특별한 관계'는 최 회장과 지 대표의 사적 친분이 공적 자금 운용의 원칙을 무너뜨린 배경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횡령을 부른 토대가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를 통해 투자한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고려아연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여리고1호' 관련 의혹도 지창배 회장과 최윤범 회장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의혹의 핵심은 최 회장이 99.9% 출자한 개인 투자조합 '여리고1호'의 투자금 회수 과정이다. 영풍 측에 따르면 여리고1호는 2019년 지창배 회장이 실소유주인 청호컴넷에 투자해 주요 주주에 올랐다. 이후 자금난에 빠진 청호컴넷은 2020년 3월 자회사 세원을 신설법인 SWNC에 200억원에 매각해 급한 불을 끄는데, 이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됐다.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SWNC가 2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고려아연이 세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은 복잡한 거래 덕분에 청호컴넷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짝퉁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후 2021년 1월, 지창배 회장이 운영하는 원아시아의 또 다른 펀드 아비트리지1호는 SWNC에 255억원을 출자했고, SWNC는 이 돈으로 고려아연에 빌린 200억원을 상환했다.

결국 '고려아연 자금 대여→청호컴넷 유동성 공급 및 주가 상승→최윤범 개인 투자금 회수→원아시아 펀드(고려아연 출자금)로 대여금 상환'이라는 자금 회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회삿돈이 돌고 돌아 결국 최 회장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쓰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장 관계자는 "상장사 자금 수천억 원이 오너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생 운용사에 몰리고 그 돈이 횡령으로 이어졌는데도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슬이 기자 seuli1024@dealsite.co.kr

관련종목

고려아연 010130

청호ICT 012600